

■ 고사성어 ⑩



당랑거철 (螳螂拒輒)

사마귀 [螳螂]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가로막는다는 뜻. 곧 ①허세 ②미약한 제 분수도 모르고 강직에게 항거하거나 담벼드는 무모한 행동의 비유. ① <한시외전 (韓詩外傳)> <권팔 (卷八)>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춘추 시대, 제(齊)나라 장공(莊公 : B.C.794~731)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던 도중 웬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螳螂之斧]' 수레바퀴를 칠 듯이 담벼드는 것을 보았다. "허, 맹랑한 놈이군. 저런 무슨 벌레 인고?"

장공이 묻자 수레를 모는 어자(御者)가 대답했다. "사마귀라는 벌레이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은 모르는 놈이온데, 제 힘도 생각지 않고 강직에게 마구 담벼드는 버릇이 있사옵니다." 장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했다. "저 벌레가 인간이라면 틀림없이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미물이지만 그 용기가 가사하니, 수레를 돌려 피해 가도록 하라." [주] <한시외전>에서의 '당랑거철 (螳螂之斧)'는 사마귀가 먹이를 공격할 때에 앞발을 머리 위로 추켜든 모습



경북 영주생 김교공파 34세 -의력- 개인전 4회, 초대그룹전 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회 원장

습이 마치 도끼를 휘두르는 모습과 흡사한데서 온 말이나 '당랑거철'과 같은 뜻으로 쓰임. ②<문선 (文選)>에 보면 '당랑거철'은 삼국 시대 (三國時代)로 접어들기 직전, 진림(陳琳)이란 사람이 유비(劉備) 등 군웅(群雄)에게 띄운 격문(檄文)에도 나온다. "조조(曹操)는 이미 덕을 잃은만큼 의지할 인물이 못 된다. 그러니 모두 원소(袁紹)와 더불어 천하의 대의를 도모함이 마땅할 것이다. ...지금 금 열악한 조조의 군사는 마치 '사마귀가 제 분수도 모르고 앞발을 휘두르며 거대한 수레바퀴를 막으려 하는 것 [螳螂拒輒]'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도청도설 (道聽塗說)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든 뜻. 곧 ①설들은 말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옮김. ②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 ①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 (論語)> 양화편 (陽貨篇)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 [道聽而塗說]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德之棄也]." 길거리에서 들은 좋은 말 [道聽]을 마음에 간직하여 자기 수양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길거리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버리는 것 [塗說]은 스스로 덕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좋은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다는 말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하고 천도(天道)를 지상(地上)에서 행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공자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스스로 억제하고 인덕 (仁德)을 쌓으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덕을 쌓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어>에서 이르고 있다. ② 후한시대, 반고(班固)가 엮은 <한서 (漢書)> 예문지 (藝文志)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대체로 소설이란 것의 기원은 입금이 하층민의 풍속을 알기 위해 하급관리에게 명하여 서술토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즉 세상 이야기라든가 길거리의 뜬소문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道聽塗說]' 무리가 지어낸 것이다." 소설이란 말은 이런 의미에서 원래는 '괘관(樞官 : 하급관리) 소설'이라고 일컬었으나 나중에 그냥 '소설'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③ <순자 (荀子)> 권학편 (勸學篇)

에는 다언 (多言)을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소인배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 곧바로 입으로 흘러나오고 (口耳之學) 마음 속에 새겨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귀와 입 사이는 불과 네치 [四指寸]' 이처럼 짧은 거리를 지날 뿐이라면 어찌 일곱 자(七尺) 몸을 훌륭하게 닦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학문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닦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배운 것을 금방 다른 사람에게 고하고 자기를 위해 마음 속에 새겨 두려고 하지 않는다. 군자의 학문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지만 소인배의 학문은 인간을 못쓰게 망쳐 버린다. 그래서 묻지 않은 말도 입 밖에 낸다. 이것을 '잔소리'라 하며, 하나를 묻는데 둘을 말하는 것을 '수다 [饒舌]'라고 한다. 둘 다 잘못되어 있다. 참된 군자(君子)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어느 세상에도 오른쪽 귀로 들은 것을 왼쪽 사람에게 털어놓는 수다쟁이 정보통이 많다. 더구나 그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사이에 점점 피리를 팔게 마련이다. 이런 무리는 해가 있을 뿐'이라며 공자, 순자는 경계하고 있다.

又岡 權彝赫 본원 명예총재

우강 권이혁

‘평화와 전쟁’ 에세이 9집 발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명예총재이신 권이혁(92·김포·34세·추밀공파·본원 명예총재) 신광출판사 권으로 지난 3월13일 '평화와 전쟁' 에세이 9집을 발간했다. 이책은 권명예총재님께서 "여유자작하고 유머가 있는 인생을 살자"는 말로 책을 시작했다. 박근혜대통령의 외교활동, 평화에 대한 생각, NLL과 사초(史草) 미스터리, 사이버테러, 사제간의 정(情) 등, 2013년에 쓴 글을 묶은 에세이다. "읽었을 때 읽은 책 중에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지금

도 잊혀지지 않는 명작이다. 전쟁 소설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전세계 지식층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더 설명할 나위가 없다." 현실이 그렇기는 하지만 필자는 그래도 '평화'가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에세이집 9집을 '평화와 전쟁'이라고 직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병사 묘역 묻어 달라"는 채명신장군의 유언,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서거, 프란체스코 교황의 행보, 방일영 전 조선일보 고문의 10주기에 대해서도 감정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고향인 경기도 김포에 대해서는 "눈부신 발전을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으로 옛날 풍경을 그리워한다"고 썼다.



권이혁 명예총재께서는 현 대한보건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명예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서 전문·비전문 41권(공저 13권) 등이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武夷棹歌(무이도가) - 朱熹(주희)

武夷山上有樵童(무이산상유선영) 山下寒流曲曲清(산하한류곡곡청) 欲識箇中奇絕處(욕식개중기절처) 禪歌閑聽兩三聲(찬가간청양삼성) 무이산 상봉에는 신선이 있고 산 아래 시냇물 굽이굽이 맑았도다. 이곳의 절경을 알고 저 하는데 어디서 노 젓는 소리 한가롭게 들리누나.

四曲東西兩石岩(사곡동서양석암) 巖下垂蘿碧澗深(암하수로벽람심) 金鷄不語無人見(금계부귀무인견) 月滿空山水滿潭(월만공산수만담) 넷째 굽이 동서에 두 바위가 서 있는데 바위에서 떨어지는 이슬이 물위에 넘실거린다. 해가 진 저문 날에는 보는 이 없고 달빛 가득한 빈 골짜기엔 동물만이 가득하다.

一溪溪邊上釣船(일곡계변상조선) 幔亭峰影蘸晴川(만정봉영잠청천) 虹橋一斷無消息(홍교일단무소식) 萬壑千巖鎖翠煙(만학천암쇄취연) 첫째 굽이 시냇가 고깃배에 오르니 만정봉 그림자가 청천에 잠겼구나. 무지개는 한 번 가니 소식이 없고 만학천봉은 비취연기에 잠겼구나.

五曲山高雲氣深(오곡산고운기심) 長時烟雨暗晴林(장시연우암명림) 林間有客無人識(림간유객무인식) 欸乃聲中萬古心(개내성중만고심) 다섯째 굽이에는 산도 높고 구름도 깊은데 오랜 연우 끝에 숲속만 어둡구나. 숲속에 내가 왔는데 아는 이 없고 노 젓는 노래 소리만 옛날과 같구나.

二曲亭亭玉女峯(이곡亭亭유녀봉) 插花臨水爲誰容(삽화림수위수용) 道人不復荒臺夢(도인부복황대몽) 興入前山翠幾重(흥입전산취기중) 둘째 굽이 정자에는 옥녀봉의 정자인데 머리에 꽃꽃 물가에 나온 여자 그 뒤 모양인고 도인은 가고 오지 않으니 허황한 꿈이건만 흥이 나서 들어가니 푸른 산이 몇 겹인고

六曲蒼屏遶碧灣(육곡창명요백만) 茅茨終日掩柴關(모자종일엄시관) 客來倚巖花花落(객래의도암화락) 猿鳥不驚春意閑(원조불경춘의한) 여섯째 굽이에는 푸른 바위가 휘둘렀고 띠 집에는 종일도록 사립문이 닫혀있다. 찾아온 손님은 노에 의지하고 꽃은 바위에 지는데 원숭이와 새가 놀라지 않으니 봄기운 한가하다

三曲君看架壑船(삼곡군관가학선) 不知停棹幾何年(부지정도기하년) 桑田海水今如許(상전해수금여허) 泡沫風濤堪自憐(포말풍조감자련) 셋째 굽이 그대를 보고 빈 배에 오르니 노를 멈춘 지 몇 해인가 알지 못 하더라도 상전이 변해가 된다더니 이제야 알았구나. 이 세상 허무함을 스스로 감내하기 어렵단가.

七曲移船上碧灘(칠곡이선상백탄) 隱屏仙掌更回看(은병선장경회간) 却憐昨夜峯頭雨(각련작야봉두우) 添得飛泉幾道寒(첨득비천기도한) 일곱째 굽이에서 배 갈아타고 물결을 거슬러 오르니 지나온 선경이 다시 돌아 보이누구나. 산봉우리에 내린 어제 저녁 비가 폭포에 더해 주니 더욱 시원하구나.

權近先祖春日城南即事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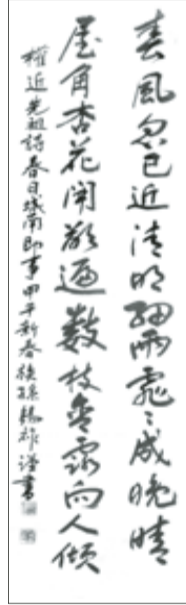


玄岡 權錫祚

(사)한국서화예술인협회 초대작가 (사)대한민국 낙동예술협회 초대작가 " " 부이사장

春風忽已近清明 細雨霏霏成晚晴 屋角杏花開欲遍 數枝含露向人傾

봄바람 느닷없다 청명가깝고 보슬보슬 가랑비 날 저물도록 집모퉁이 살구꽃 활짝피고자 이슬 먹은 두어가지 축 늘어졌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⑥ 감나무

□ 靑南 權寧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만주에만 있는 감은 순수한 동양의 과실입니다. 감은 아주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의 무척 가까웠던 과일이고, 우리는 감과 더불어 살아왔으며, 감으로 인해 우리의 정서도 자라왔습니다. 감은 별도 과수원을 조성해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집들 안에 심어서 봄에는 감꽃을 보며,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즐기고,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그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어왔습니다. 감 한 개라도 형제 간에 나눠 먹고 어

른을 공경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라는 존재는 많은 인연의 연기로 이루어진 전체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경북 상주가 감으로 유명한 것도 따뜻한 기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과 아주 비슷한 나무로써 고양나무가 있지만, 고양은 그 열매가 잘고 씨가 많아서 식용으로는 매우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양은 감을 절뎠이는 대목으로 쓰

여 왔습니다. 감에는 얽힌 이야기도 많습니다. 옛날 오성 대감 집 마당에 심은 감나무 한 가지가 권을 장군 집 마당으로 뻗어나가 많은 감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을 매년 권을 장군 집 하인들이 모두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집으로 넘어온 감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역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늘 분하게 생각하던 소년 오성은, 어느 해 가을 권을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감에게, "대감님! 이 팔이 제 팔입니까? 대감님 팔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대감은 어린 오성이 하는 것이 놀랐고도 귀여워서, "그래, 그것은 네 팔이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성은, "그렇다면 저기 저 가지의 감은 누구네 감입니까?"하고 되받아 물었습니다. "안, 그야 너의 집 감이지."하고 대감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오성은, "그러면 대감님! 우리 감을 올리는 모두 주인에게 주셔야 합니다."하며 붙어왔다고 합니다.

石堂 權公範 서예가

제31회 한국미술제 특선



권공범

권공범서예가(추밀공파 매헌공 종회부회장, 38세)는 지난 3월22일 제31회 한국미술제에 작품을 출품해 한문서예(해서)로 특선을 수상했다. 권서예가는 꾸준히 서예를 습득해 지난 2013년 제3회 대한민국의 매죽헌서예대전, 4회 대전·충남유림서예전, 13회 한국서가협회 충북지부에 각 漢文楷書를 출품해 특선을 받았으며, 이어 지난 3월22일 주최 한국문화협회, 주관 한국미술제운영위원회로 열린 제31회 한국미술제에서 특선해, 4차례 특선되어 서예가로서 크게 활동하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소년의 기지를 대견하게 생각한 권을 장군은 하인들에게 엄명하며 그 감을 하나도 따지 못하도록 한 후 가을에 감이 익자 감을 모두 따서 오성의 집으로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오성은 권을 장군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런 일들로 권을 장군에게 잘보여서 각시까지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달의詩 권순재 (향토문화연구가) 핀꽃 진다 꽃피는 봄이왔네 암선 뜰에 핀꽃이 진다네 구름철새 구름이 흘러가다, 한쪽의 그림, 펄펄 새가 나네 철새들 빙빙돌다, 난산간달때 제비 날아오네